

Canterbury Presbyterian Church – 17th Sept 2017.

Today we're going to look at the calling of Jeremiah and considering 4 points:

- 1) The timing. When was Jeremiah called?
- 2) The person. Who was Jeremiah and why did God call him?
- 3) The encouragement. Having received the call, God gives Jeremiah encouragement.
- 4) The content. The message that God called Jeremiah to deliver.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소명을 4 가지 포인트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 1) 타이밍. 예레미야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 2) 사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나?
- 3) 격려.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심.
- 4) 내용.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So first of all, the timing of Jeremiah's call. In verse 2 we read about the time during which Jeremiah prophesied. It was during the lives of Kings Josiah, Jehoiakim and Zedekiah. A total of about 40 years, the last 40 years before Judah went into exile. Just before exile, yet God still sends a prophet. But God hasn't given up on the people of Judah. There have been years of rebellion. They were worshipping other gods throughout the reign of Manasseh and Amon, who were the predecessors of Josiah. Then Josiah becomes king, the book of the law is found in the temple, Josiah hears it read to him and repents.

첫번째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타이밍. 2 절에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시간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 합쳐서 40 년 정도, 유다가 추방 당하기 전 마지막 40 년 이었습니다. 추방 직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전임자였던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요시야는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 Ki 22:11 we read 'when the king heard the words of the Book of the Law, he tore his robes. ' And he says (v13) 'great is the LORD's anger that burns against us because those who have gone before us have not obeyed the words of this book.' And so Josiah ushers in religious reform. Anything to do with worship of the false gods Baal, Asherah or Molek is completely destroyed. The Passover is celebrated, the first time in years. And while Josiah is zealous and sincere in the reforms, it appears that the Israelites did not follow his example. Certainly his son didn't, for after Josiah's death, his son Jehoiakim becomes king. The Bible says of him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 next king, Zedekiah, the Bible says of him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열왕기하 22:11 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3 절)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작되게 합니다. 우상인 바알, 아세라 또는 몰록과 연관된 모든 것은 무너뜨렸습니다.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개혁에 열성적이고 간절했던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본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에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고 그는 확실히 요시아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에 왕이 된 시드기야에 대해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This is a dark period in Israel's history, when they had forsaken their God, the God who had called them to be his treasured possession, his special people. And they had turned their back on him and chased after other gods. Time after time, decade after decade, they gave glory to gods who are not gods. They bowed down to wood and stone objects Robbing God of the honour and glory due to him, In that context, God sends yet another prophet. We might think it's too late. We might think 'it's too late, for this person or that person.' Or we might think 'there's no hope for that group of people who think that particular way.' But God doesn't. It is never too late for a person, for a people group, for a nation, to hear the beautiful words of the gospel; of God's judgement against sin, and his wonderful promise of reconciliation and restoration through Christ.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시간은 그들을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로 불러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신들을 좇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수십년 동안 그들은 신이 아닌 신들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나무와 돌로 된 형상에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영광을 앗아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은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다는 아름다운 약속을 듣기에 너무 늦은 사람, 그룹, 그리고 나라는 없습니다.

The second thing we want to look at is who God called. What was it about Jeremiah that made him suitable for this job? And so we read in verse 4 that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eremiah, saying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Before you were born, I set you apart.' God knew Jeremiah, and the plans he had for him, even before Jeremiah was conceived. That is mind blowing. God knew what foods Jeremiah would like. What his favourite colour would be. What profession he would take up. How he would do at school. What his personality would be like. Who his friends would be. God knew all of that, in fact God knew EVERYTHING about Jeremiah, before he was conceived.

두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어떤 점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4 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부터 그를 아셨고 그를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 것인지, 어떤 색깔을 좋아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학교 성적은 어떨 것인지, 성격은 어떨 것이고 어떤 친구들을 사귄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고 또 예레미야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It sounds very much like Ps 139 (read vv 1-5). God knew Jeremiah better than anyone, better than his own parents did, better than his best friend did. That means God also knows what Jeremiah will

be good at, and not good at. What skills, talents he has. And how he can best use those skills, gifts and talents to serve God. God created him with those skills, gifts and talents So God knows how Jeremiah can best use them! Jeremiah is called to be God's prophet here, yes that's true. But before he is called, God has already made him Before he is called, God knows exactly what he is going to be like Jeremiah is not so much called to be a prophet. He was made to be a prophet.

이것은 시편 139 편 (1-5 절)과 아주 비슷해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의 부모님 보다도, 그의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는지, 또 이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가장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재능, 은사, 그리고 달란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지으셨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 다가 보다 선지자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The application for us is this: For us, we are not called to mission. We are each made for mission. In Eph 2:10 we read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We aren't called to do these good works – we were made to do them! And the purpose of these good works? Jesus teaches us that in Matt 5:16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that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your Father in heaven.' The purpose of doing good deeds is to that others would give God honour and glory. So in Ephesians we read that God made us to do certain good works And in Matthew we find that these good works are so that others would glorify God. Putting those two texts together, we were made so that others would glorify God! Just like Jeremiah was made to be a prophet to the nations, God already made him that way before he called him, So each one of us is made so that God would receive more honour and more glory which is due to him in the first place.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10 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일을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그러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16 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일을 행함의 목적은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이 선한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합하여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부터 선지자가 될 사람으로 지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하신 영광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들 입니다.

Or in other words, we were made to tell others about God. We were made for mission. How does Jeremiah respond to God telling him what he is made for? This God, who knows Jeremiah so

incredibly well, says to him 'I appointed you as a prophet to the nations.' And Jeremiah says 'no.' Jeremiah says 'no' because 'I do no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 Moses said something similar. After God tells him that he's the one who will deliver Israel from slavery Moses gives a whole bunch of excuses including (Ex 4:10) 'Pardon your servant,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in th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I am slow of speech and tongue.' God doesn't accept Jeremiah's excuse. He doesn't accept Moses' excuse, telling him something very similar to what he told Jeremiah. Ex 4:11 The Lord said to him, "Who gave human beings their mouths? Who makes them deaf or mute? Who gives them sight or makes them blind? Is it not I, the Lord?"

다른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으심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지으심 받은 목적을 말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 합니까? 예레미야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 하시자 예레미야는 거절 합니다. 그가 거절하는 이유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습니다.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낼 자라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 4:11) 등 여러가지 핑계 늘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핑계도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하시며 받지 않으십니다. 출 4:11 에서 여호와께서 말씀 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Can you hear the similarities to the story of Jeremiah? It's like God is saying 'Moses, I made you. I know what your speech is like. I made it like that especially for this purpose. So get on with the job.' What's our response? When we know that we were created so that we could share the glory of our creator with others, so that our creator might receive more glory God made you uniquely you, exactly you, in order that you might shine the light of his glory in your life, so that others will see it and give glory to him. For some that is shining that light right here in Melbourne. For others it means shining that light of God's glory amongst those who have never even heard of God. But you have all been made to shine the light of his glory, so shine it brightly. But God doesn't leave Jeremiah there. He's told Jeremiah what his job is: you will be a prophet to the nations. But he continues with some wonderful encouragement. There's three parts to this encouragement and we'll briefly look at each of them. I am with you. I have put words in your mouth. Vision of the almond tree.

예레미야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야,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언어능력이 어느정도 인줄 안다. 이 일을 위해 너를 특별히 만든 것이다. 가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특별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형태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곳 멜번에서 빛을 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한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주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의 소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여러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격려는 계속 됩니다. 이 격려는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살구(almond)나무에 대한 환상.

First of all, verse 7. '7 But the Lord said to me, "Do not say, 'I am too young.' You must go to everyone I send you to and say whatever I command you. 8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o you hear the comfort in those words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첫번째로 7-8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함께 하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의 위로는 느껴 지십니까?

I have two boys aged 6 and 8. Sometimes they wake up at night from a scary dream. They come into our room and wake me up They always come to my side of the bed, never Sarah's side And they say to me 'Dad, I had a scary dream.' I've tried various tactics over the years Like tucking them back in, giving them a cuddle and then saying 'I'll be just outside the door.' And then staying there maybe 5 minutes and then tip toeing back into my own nice warm bed.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it takes them more than 5 minutes to get back to sleep. So after 8 minutes they call out 'Daddy.' And I don't answer because I'm back in my own bed again! So they check if I'm still behind their door, they realise I'm not, so they come back to my bed. 'Daddy, you're not outside our door anymore.' So now my tactic is this. If they come in and say 'Daddy, I've had a scary dream.' I just hop in their bed with them. And they don't worry about whatever scary dream they had anymore. Why? Because Daddy is with them!

저는 6 살, 8 살짜리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은 악몽을 꾸고 밤에 깨곤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희 방으로 들어와 저를 깨웁니다. 거의 항상 제 아내 사라 쪽으로 가지 않고 제가 있는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무서운 꿈을 꿴어요". 수년간 저는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시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주고 안아준 뒤 바로 문 앞에 있겠다고 말하는 방법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방 앞에 5 분정도 있다가 따뜻한 침대로 조용히 돌아 갔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아이들이 다시 잠이 드는 데는 5 분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 분 뒤에 아이들이 아빠를 불러도 저는 다시 제 침대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럼 나와서 제가 문 앞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없다는 것을 깨달어 다시 제 침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빠, 이제 우리 문 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 무서운 꿈을 꿴어요' 하고 들어오면 아이들의 침대에 같이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악몽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the encouragement God gives to Jeremiah right here. Don't worry, Jeremiah, I'm right there with you! We read earlier from Ps 139:5 'you hem me in behind and before, and you lay your hand upon me.' Jesus repeats these words in Matt 28:20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The God who made you uniquely to be exactly who you are, Knew exactly what you would be like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Knows exactly what you like and what you don't like, What you're passionate about and what you're not, Who made you to bring honour and glory to

him, That same God, He is with you! In whatever situation you find yourself in, look, there's your Daddy, your heavenly Daddy, He is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걱정하지 마 예레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시편 139:5 에서 읽었듯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마태복음 28:20 에서도 반복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러분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열정이 없는 것에 대해 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해 주시고 구원 해 주실 것입니다.

The second piece of encouragement is in verse 9. ⁹ Then the LORD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said to me,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¹⁰ See, today I appoint you over nations and kingdoms to uproot and tear down, to destroy and overthrow, to build and to plant." The Lord touched his mouth and sai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At the basic level, Jeremiah is here being made the spokesman for God, and God is encouraging him by saying 'I want you to speak my words but don't worry, I'll give you the words to say.' But the mouth refers to much more than simply the words we speak or say. The mouth is an image that we come across frequently in the Bible. It reveals what's in the heart. For example, in Matt 12:34 Jesus says ³⁴ You brood of vipers, how can you who are evil say anything good? For the mouth speaks what the heart is full of.' And so a person's mouth is actually revealing of what is in their heart, i.e. their character. For example, this means praise and worship that comes from your mouth reveals your heart's desire to praise and worship God. The 'mouth' also conveys the idea of thought and knowledge. For example in Joshua 1:8 we read ⁸ Keep this Book of the Law always on your lips;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everything written in it. Then you will be prosperous and successful.'

두번째 걱려는 9-10 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만지시며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만들어져,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 말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말을 알려 주겠다" 라고 격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34 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 (i.e. 성품) 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입'이라는 것은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 1:8 에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idea here is that the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you are things that you will speak about frequently. So for example, I love cycling and can talk about it for hours, but know very little about

fishing and will be done in less than 5 minutes when it comes to that topic. So what I speak about reveals the knowledge I have. It also reveals moral character. When Isaiah is called to be a prophet, he laments that 'I am a man of unclean lips.' God then takes a coal from the altar, touches his lips with it, thus making him clean. Cleanliness of lips in that account is a demonstration of inner purification. And so keeping those three images in our minds: the mouth as revealing what's in our heart, of revealing what's in our mind, of a symbol of inner purification, So when God says to Jeremiah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this is not a case of Jeremiah being a parrot simply repeating whatever God says to him.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 몇시간 동안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낚시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모르고 낚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5분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 저의 지식이 드러납니다. 또 저의 품성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오셔서 그의 입술을 만지시고 그로 인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입술이 깨끗케 됨은 우리 마음의 정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가지를 기억 하십시오: 말로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고, 또 말은 마음이 정결케 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It conveys the idea of God taking his own clean heart and placing that into Jeremiah, to replace Jeremiah's filthy, sinful heart, of taking his holiness as expressed in his law and placing that into Jeremiah, replacing Jeremiah's guilt and shame. of taking his own purity and placing that into Jeremiah, replacing Jeremiah's sin stained filth. That is what is happening here. Jeremiah is getting a completely new inside, a new heart, the old is being replaced with the new. The old of rebellion against God, of stubbornness, of thinking 'I can do it better than God' and 'go away God, let me do it my own way.'

하나님께서서는 자기의 정결한 마음을 주어서 예레미야의 더럽고 죄많은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신의 율법으로 표현된 신성함을 주어서 예레미야의 죄악과 수치스러움을 바꾸어 주십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주어서 예레미야의 쓰레기와 같은 죄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는 내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옛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옛사람은 고집스럽게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할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 했었습니다

That heart is being replaced by God's own heart, his own thoughts, his own mind. So that now, Jeremiah's heart will beat in tune with God's heart. His thoughts will be God's thoughts. His words will be God's words. Because God has come to live inside of him. And this is the encouragement for us. That same God has come to live inside of you. When Jesus went up to heaven, he sent the Holy Spirit in his place, who has come to live inside of us, so that with the HSp inside of us, we are a new creation.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심장은 하나님의 심장과 함께 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를 대신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And so the power, the ability to reflect God's glory, to take the knowledge of his fame to the ends of the world, that power comes not from us ourselves. No, it comes from God! What an encouragement! We don't have to rely on our own strength in order to share of God's goodness with others. We can rely 100% on God! Because he has come to live inside of us, and so our lives will most naturally be a reflection of who God is, and his glory! And so that's the second encouragement: God lives in us, he is the enabler.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 이심과 그의 영광을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번째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God gives Jeremiah a third encouragement. A vision of an almond tree. There's a play on words in the Hebrew here that doesn't come through in the English. The word for 'almond' sounds almost like the word for 'watching' which is what God says he is doing. V 12 'the LORD said to me "you have seen correctly, for I am watching to see that my word is fulfilled."' God is watching. He doesn't send Jeremiah out there to preach judgement in Israel, and then sit back and do nothing. No, God is watching, this means that he makes sure that every word that he says through Jeremiah will come true! Jeremiah will not look like a fool, and God will not look like a fool, because what he says will happen. The encouragement is this. As we share with people of God's judgement and wrath against sin, we know that God is watching and that he will judge sin. And as we share with people of God's grace and his promise of reconciliation for those who by faith put their trust in him, God is watching and he will keep that promise. God is watching to see that his word is fulfilled, and he is watching today as his word goes out over all the world still today, as it goes out from your life, God is watching. So those are the three messages of encouragement that Jeremiah receives, and that we receive today. God is with us, always, in fact he lives inside us and works through us and finally he is watching to make sure that his promises will come true.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 번째 격려를 주십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영어로 옮기기 힘든 언어표현이 있습니다. "Almond"의 발음은 'Watching'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 장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심판에 대해 전하도록 하고 그냥 눌러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는 모든 말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3 번째 격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에 대해 공유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있고 그가 죄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공유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계시며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모든 세상에 퍼져나가는 곳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 가지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계십니다.

The final point; the content of Jeremiah's message. Verse 13-16 (read) Words of disaster against Judah. Of this foreign nation from the North, which is Babylon, invading Judah. Their dignity and honour gone. Foreign kings setting up their thrones in Jerusalem. Why? Why this disaster? V 16 ¹⁶ 'I will pronounce my judgments on my people because of their wickedness in forsaking me, in burning incense to other gods and in worshiping what their hands have made.' Jeremiah is in a long line of prophets who all gave the same warnings. Return to the God who created you, who made you. You are his treasured possession! Honour him! Worship him!

마지막으로 13-16 절에 나와있는 유다에 대한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북방의 이방 족속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유다의 존엄성과 명예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왕좌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있을까요? 16 절: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그의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경배하십시오'.

But like the prophets before him, they rejected Jeremiah also, despised his message and so despised God. And so God is proved just in his judgement. His judgement on Judah wasn't random, it was because of their wickedness. There was no way they could go up to God and say 'that wasn't fair!' Because it was. God, who had been patient for so long, has now become their enemy. Judgement for their sins. Not an easy message to have to tell anyone. I can understand why Jeremiah was reluctant to take this job. And yet see God's charge to him: verse 17 'get yourself ready! Stand up and say to them whatever I command you.' In other words, share with them everything. Don't leave out the bits that don't sound nice, the bits that make you unpopular.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그의 메시지와 하나님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의 사악함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적이 되어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역할을 하기 싫어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7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좋지 않게 들리는 것이나 인기없게 만들 만한 것들도 빼놓지 말고 공유하라고 합니다.

And that's the same for us today. As we take God's message, we can't leave out bits that people don't want to hear. We can't change it to make it palatable. We need to declare the whole word of God. A God who hates sin. Who hates it when we put other things at number 1 in our lives, and not him. A God who hates it when we worship creation and created things, or pleasure or his blessings, rather than Him – the creator and giver of all things.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들을 빼놓으면 안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최우선 대상으로 두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대신에 피창조물이나 쾌락, 축복을 숭배하고 추구하는 것을 싫어하는 하나님입니다.

And see once again that God encourages Jeremiah. Verse 18 ¹⁸Today I have made you a fortified city, an iron pillar and a bronze wall to stand against the whole land—against the kings of Judah, its officials, its priests and the people of the land. ¹⁹They will fight against you but will not overcome you, for I am with you and will rescue you,” declares the LORD. God doesn’t say that Jeremiah will have it easy all the time. But he does promise to sustain him, to help him be able to stand, against opposition. And the repeat of those comforting words ‘for I am with you’ that we have already looked at. The same is true for us today. As we witness of the truth of God in our city, in other nations far away, It’s not always going to make us popular. God never promises that. But he does promise that he will be with us, and that he himself is the power that will sustain us. So let us be bold in proclaiming the glory of God, to our city,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하나님께서서는 18-19 절에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격려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함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항상 쉽고 편하게 이것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대세력으로부터 견뎌내고 지탱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반복적으로 위로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증인들은 항상 인기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가 우리를 지탱시켜줄 힘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서있는 곳으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Let us pray.

기도하겠습니다.